

금속 선반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말기신부전증

성별 남성

나이 59세

직종 금속 선반가공 작업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2009년 7월 13일부터 2020년 6월 3일까지 □사업장에서 생산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019년 11월 야간 근무 이후 피로가 심해지고 몸 상태가 나빠졌고, 2020년 6월 초 증상 심해져서 6월 10일 대학병원 진료 후 말기신부전증을 진단 받고 투석 중이다. 근로자는 지속적인 교대 작업과 과로로 인해 말기신부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20년 7월 4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0년 12월 22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가 2009년 7월 13일부터 2020년 6월 3일까지 근무한 □ 사업장은 조립금속, 나사제품 등의 제조를 하는 기업이다.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 근로자는 1987년부터 2005년까지 18년간 2개 사업장에서 악기에 들어가는 금속에 대한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 하였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은 제품 치수 측정, 재료 투입, 공구 교환, 설비 주변 정리 등이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생산직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교대로 교대 작업을 하였다. 주간 근무 08:20-19:30, 야간 근무 19:20-익일 08:00, 주 5일 근무이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1일 2회, 각 10분씩 휴게 시간이 있다. 기본적인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야간작업 시 63시간 25분이고 주간작업 시 49시간 10분이다.

3. 해부학적 분류

- 비뇨기계 질환

4. 유해인자

- 물리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9년 11월 야간 근무 이후 피로가 심해지고 몸 상태가 나빠졌고, 2020년 6월 초 증상이 심해져서 6월 10일 대학병원 진료 후 말기 신부전증을 진단 받고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보았을 때 근로자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의원에 내원한 기록이 있고, 근로자 면담과정에서 근로자는 약 15년 전부터 단백뇨가 있음을 병원에서 들었으나 그간 큰 이상은 없었다고 하였다. 대학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2020년 6월 12일부터 투석 치료를 시작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대학병원의 초진 기록에 따르면 2015년 10월 5일 상승된 크레아티닌 수치를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당일 시행한 혈액 검사 소견을 보면 Creatinine(Cr) 1.31mg/dl eGFR(CKD-EPI) 61mL/min/1.73m², eGFR(IDMS-MDRD) 57mL/min/1.73m² 이었다. 점차 근로자의 eGFR 값은 악화되어 2020년 6월 10일에는 5mL/min/1.73m² 이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만 59세인 2020년 말기신부전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09년 7월 13일부터 2020년 6월 3일까지 □사업장 에서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치수 측정, 재료 투입, 공구 교환, 설비 주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만성신장병의 경우 고혈압, 당뇨, 자가면역질환, 고령, 사구체 질환 및 납, 기타 중금속, 방사선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교대작업이 상병악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혈압(2000년)과 교대작업 시기(2009년), 그리고 eGFR 감소시기(2016년)를 고려할 때 교대작업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